

“방재시설 확충·제도 정비 최선 다할 것” 승례문 참사 1주년...문화재방재대책 여전히 부족



승례문 복구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문화재청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화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2008년 2월 10일 갑작스런 화재로 전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승례문 참사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은 참사 1주년을 맞아 2월 10일 승례문 복구현장을 일반에 공개했으며, 3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시회 ‘승례문-기억, 아쉬움 그리고 내일’을 개최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방재대책 마련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동안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흥인지문 등 문화재 118건(139억원), 궁·능·유적 20건(31억원)에 침입차단 및 화재감지기 기본설비 정비를 구축했다. 또 목조문화재 120곳에 안전경비인력 382명을 추가 배치하고,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150곳에는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사 1주년을 맞아 화재대응 합동 소방훈련(2월 10일 덕수궁 중화전), 방재 실태 현장 점검(2월 6일 종묘), 문화재 시설물 무단침입방화대응 합동 훈련(2월 4일 수원화성 행궁) 등도 진행했다.

이경무 청장(문화재청)도 10일 승

례문 복구현장에서 “승례문을 잃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화재 관련 예산도 증가한 만큼 방재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목조 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화재청이 1월 19-23일 진행된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안전점검 결과에도 드러난다. 당시 점검에서 일부 문화재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 가스·전기시설 등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 보수 및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717호 보도). 문화재청이 10일 행사에서 “2009년에도 문화재 193곳에 초동·자동화 설비를 마련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454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 323건을 마련하는 등 인적·물적·법적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진성 기자

“강호순도 사형집행만은 안된다”

종교·시민단체, 사형 집행에 반대성명

종교·인권단체들이 사형제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사형제폐지운동본부(대표 진관)를 비롯한 종교·인권단체들은 2월 11일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미집

행 사형수에 대해 집행 움직임을 보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제도를 민심수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등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이사회 쇄신 한목소리

서불대, 학내구성원 성명서 발표 잇따라

“이사장 지옥 스님은 교수의 부당해임을 즉각 철회하고 이사장직을 설립자 덕해 스님에게 즉각 반납하라!”

법원판결을 통해 복귀한 황윤식 총장과 박성현, 성승연 교수를 해임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 이사회(이사장 지옥 스님)의 이사장직 반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각각의 성명서에서 표현의 수위는 조금씩 달라도 △현 이사장 지옥 스님을 비롯한 이사회

이제라도 스승인 덕해 스님에게 참회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제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인사관리 관련자 사퇴 △지옥 스님의 이사장직 반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사회

수가 해임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학생이 맘 놓고 학문을 논하며 수업을 할 수 있겠나”고 통탄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측은 서불대 총장권대행 명의의 입장서를 발표해 사태 진화에 다급해진 모습을 보였다.

서불대 총장직무대행(김영란 교수)은 2월 8일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황윤식 前 총장의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황 前 총장의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와 직원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신입교원 채용과 교원인사를 단행”하고 “신입 교원들을 비밀리에 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불대가 학내분규를 종식하고 수행·명상전문 대학원대학으로서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미륵사 사리장엄 불교계와 말로만?”

문화재청, 조계종과 연등회에 다른 대응 물의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출도시 이운 절차 없이 진행되는데 대해 각계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이 일관되지 못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중당 국회의원 불자모임 연등회(회장 최문순)는 2월 9일 “문화재청이 미륵사지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연등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해체당시) 유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우선이

라 판단돼 이운의식 등에 대한 불교

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정법 스님(재무부장), 세영 스님(사회부장), 수경 스님(문화부장) 등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11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1월 22일 조계종 문화부가 1월 22일 항의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문화재청이 이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문화재청의 기관별 대응에 조계종의 위상을 염려하는 이들도 많다. 문화재청의 일관성 있는 대응은 차치하고라도 사리구출 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조동섭·김진성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교단자정센터

명섭 스님 관련 논쟁 발표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숙)는 국고보조금 편취로 구속된 명섭 스님(전 화엄사 주지)과 관련된 논쟁을 2월 12일 발표하고, 종단의 고위공직자 호계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월 5일 구속된 주지 명섭 스님 사건은 현 종단 일부 스님들의 도덕성하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실추된 조계종단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계종 호법부는 미비한 ‘호계제도’를 개선해 돈과 관련된 세간적 비판과 모멸을 받지 않는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명섭 스님은 국고보조금 24억, 문화재관리료 13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덕현 기자

“시대의 등불과 사회의 목탁되겠다”

국회 정각회, 기축년 신년법회 봉행

국회 정각회(회장 최병국)는 2월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초청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과 이해봉(한나라당 불자회) 최문순(민주당 연등회장) 안홍준(정각회 부회장) 이계진 주호영 박선숙 최재성 조문환 의원 등 정각회 소속 의원 및 국회직원신년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에서 “마음의 주인(心主)으로 정당하고 땃땃하게 열심히 살면서 객의 고탄픔을 나누는 것이 참다운 불자”라며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조계종 표준 <금강경> 대승정준본을 독송 후, 안홍준 의원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불교가 성하고 흥할 때 나라가 바로 섰다”며 “불퇴전의 정진으로 불교를 외호하는 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역경원장...조사위’ 발기인대회 개최

위원장에 초격 스님 추대, “오 총장 공개사과에 주력”



2월 12일 동국역경원장일방해임진상조사위원회 발기인대회에는 혜거 스님(금강산원장)과 주영훈 이사장(행원문화재단) 등 서부대동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월운 스님에게 결례 범한 동국대 오영교 총장을 사과하라!” “동국대 이사회는 불자들에게 해명하라!” “조계종 총무원은 동국역경원에 대한 종단의 입장을 밝혀라!”

前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에 대한 동국대의 일방적인 해임결정에 불자들이 관련자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국역경원장일방해임진상조사위원회 준비위원회 이경호’는 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대회에는 동국대의 부당한 처사와 종단의 무관심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았다.

혜거 스님은 격려사에서 “원력으로 일생을 역경에 헌신한 스님을 홀대하면 앞으로 누가 역경에 힘쓰겠나”고 반문했다.

월운 스님의 전강제자 취봉 스님은 “1964년 1월 29일, 청담 스님이

동국대 은실서 재배해 수확한 토마토 2과를 운허 스님에 전했다는 미담이 있다. 이런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종단, 그런 미덕을 가르치는 상아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참가대중의 만장일치로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동진위)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장에 초격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총회위원)을 추대했다.

초격 스님은 “사부대중의 순수한 열망을 모아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진위는 이날 7인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예고하고 관계기관에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초격 스님은 행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모임은 월운 스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동진위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순수한 모임임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닷물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 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연)
韓國民俗哲學研究所 所長 方弼錫

주역 개인지도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寶明寺 周易講義 講師
- 前 世界佛敎徒 友誼會 弘報次長
- 現 韓國易理學會 中央學術委員
- 現 韓國民俗哲學研究所長